

일상 생활속의 디자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esign in Everyday Life

오 창 섭

영동대학교 예술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Oh, Chang-sup

Dept. of Industrial Design, Youngdong Univ.

Key words: Design in Everyday Life, Creative Imagination

1. 서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물들과 이미지들이 왜 디자인을 통해 존재해야 하는가? 즉 디자인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많은 디자인 답론들은 그 답을 기업의 이윤획득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이 자리하는 곳 또한 이윤획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업의 디자인실, 혹은 디자인 진흥기관 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어느덧 디자인은 삶의 총체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생산과 관계된 한 과정 정도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태도가 가지는 더 큰 문제는 디자인을 정의하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 받으려 한다는데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에 존재하면서 일상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요원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을 일상 생활의 맥락에서 정의함으로써 삶의 총체적 차원으로 디자인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삶과 보다 밀착된 곳에 디자인을 위치시킴으로써 일상 삶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일조할 것이다.

2. 일상 삶속의 디자인

2.1. 일상 삶

일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특별하고 전문적인 것과는 다른 관계화되고 습관화된 어떤 것을 칭한다. 때문에 일상 삶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전문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인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 는 이를 보잘것 없는 보통사람들이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방식, 즉 그들의 일과 걱정거리, 그

들의 노고와 여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상 삶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며 만들어가는 반복적인 삶인 것이다. 때문에 일상 삶의 영역에서는 전문적이며 특별하고 보편적인 내용 보다 개인인 스스로가 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그 곳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의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개인들은 주관성을 통해 세계에 적응하고 저항하며 자신을 표현한다. 이 과정이 바로 삶의 과정이다. 주관성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하게되는 여러 사회적 힘들의 작용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모습의 주관성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유전형질을 바탕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관계하는 힘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과 대상에 대하여 각 생활 주체들이 반응하는 방식과 내용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삶의 공간은 이러한 개별적인 반응 내용들이 서로 만나고 작용하는 곳이다. 개별 주체들에 의한 작용과 반응들이 만들어가는 일상 삶은 따라서 일관되고 영원함이 자리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모순이 자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이것이기도 하면서 저것도이기도 한 임계상태(臨界狀態)의 공간인 것이다.

2.2. 일상의 디자인: 창조적 상상력의 표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어떤 이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 해결의 과정 (Bruce Archer)'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의미있는 질서를 부과하려는 의식적인 노력(V. Papanek)'으로 이해된다. '특정한 처지에서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Hanks/ Belliston/ Edwards)'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활동(J.B. Reswick)'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의 의미들은 주로 산업의 영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과 관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이러한 디자인의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앞서도 보았듯이 일상 삶의 주체들은 자신의 주관성에 바탕을 둔 실천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 실천은 외부세계에 대한 인간의 행위로 물질적인 구체적 차원뿐 아니라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추상적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들의 실천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양한 상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디자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러한 디자인 활동이 가능한 것은 일상 삶의 주체들이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상상력은 개개인들의 주관성에 의해 삶의 상황들속에서 발휘된다. 삶이 만들어 내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한데, 각각의 상황들은 실천 주체들의 주관성을 자극하고 자극된 주관성은 상상력의 도약(Leap)을 통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일상 삶의 주체들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과정에 행사하는 창조적 상상력을 일상의 실천 속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시카고 대학의 크식스젠트미하일리(Mihaly Csikszentmihalyi)는 "사물의 소유자는 역동적으로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조적 노력 보다 더 창조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여란 그의 삶에서 어떤 인공물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상 삶의 참여 행위가 매우 창조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비교하여 삶의 주체들이 보여주는 창조성이 천하고 주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삶의 주체들이 삶의 과정에서 발휘하는 창조성은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사물의 실제적 의미들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2.3. 일상에 작용하는 개별적 필요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물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다. 그 목적은 보편적 필요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지속성을 지니며 그 사물의 존재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상 삶의 개별적 상황들은 그 보편적인 목적을 해체하고 주관성에 바탕을 둔 창조적 상상력의 도약을 통한 변형을 시도한다. 이러한 변형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개별적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별적 필요는 항상 변화하며 또 다른 변형의 가능성으로 향한다. 여기서 생활 주체는 능동적이고 동적

인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인받는다.

공업 제품, 혹은 이미지의 생산과 관계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일상 삶의 주체들은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디자인 의도가 이러한 정태적인 삶 속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의 일상 삶은 이러한 디자이너의 의도와 가정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생산의 과정에서 가정된 디자인 의도들은 사용의 과정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의미들로 변형되게 된다. 많은 사물들은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개별적인 실천 속에서 실제적 의미를 드러낸다. 대상은 고정되고 추상적인 이데아로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개별적인 파편들 속에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들 각각이 삶에서 각 개인들에게 얼마만큼 의미있고 소중한가의 정도는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자 생산의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의 과정에서 의미있고 잘된 디자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물들과 이미지들도 삶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 결론

오늘날 디자인을 공업 제품, 혹은 이미지의 생산과 정의 한 단계쯤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실제 삶과 디자인 사이의 틈을 만들 뿐 아니라 디자인의 도구적 차원으로 제한한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상 삶의 주체들 모두는 그들의 삶 속에서 디자인을 행하는 디자이너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디자이너로서의 그들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상 삶의 디자인은 우리가 주시해야 할 또 하나의 디자인이다. 결국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은 오늘날 디자인 담론이 포용해야 할 의미있는 산물이자 활동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2. 오광섭, 디자인과 키치, 토마토, 1997
3.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역), 도서출판 主流, 1995
4. Victor Margolin and Richard Buchanan (Ed.), The Idea of Design, The MIT Press, 1995